2027학년도 모의논술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교사용]

성균관대학교
1398 SUNG KYUN KWAN UNIVERSITY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 2027학년도 모의논술 개요

2027학년도 모의논술(언어형)은 우리 대학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아래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문해력과 분류·요약 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 활용, 비판적 사고, 논술·논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7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우리 대학의 이전 논술 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 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또한 전년도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와 일관되게, 수험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문제와 연결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현대 미디어 환경과 인간 행동의 관계'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매체의 윤리적 문제와 개인의 자율성, 사회적 강제력 등의 내용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교과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또한 이 문제는 정보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 변화라는 주요 사회 현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주제라고 판단하였다.

[문제 1]의 제시문은 유관 분야 학자의 저서 등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하거나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1> 로이 F. 바우마이스터·존 티어니, 『의지력의 재발견』, 이덕임 역, 에코리브르, 2012.

<제시문 2> 에밀 뒤르켐,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 민혜숙 역, 이른비, 2021.
르네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김모세 역, 살림, 2008.

<제시문 3> 한병철, 『서사의 위기』, 다산초당, 2023.

<제시문 4>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2.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길, 2011.

[문제 2]의 자료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 추론한 바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논리적, 체계적으로 연결해 논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3]은 [문제 1]에 제시된 두 가지 입장의 핵심 주장과 [문제 2]의 유관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현실의 구체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 **평가항목과 문항별 배점**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글에 대한 독해력, 자료 이해와 비판 능력, 그리고 논술·논증 능력을 평가해 왔다. 대학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한가: 50%

② 논리 전개와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20%

③ 표현력 및 어법: 15%

④ 답안의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답안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문항별 배점

[문제 1] : 40점

[문제 2] : 40점

[문제 3] : 20점

○ 채점등급별 점수

[문제 1], [문제 2]

① A 등급: 40점

② B 등급: 32점

③ C 등급: 24점

④ D 등급: 16점

⑤ E 등급: 8점

⑥ F 등급: 0점

[문제 3]

① A 등급: 20점

② B 등급: 16점

③ C 등급: 12점

④ D 등급: 8점

⑤ E 등급: 4점

⑥ F 등급: 0점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 문항별 세부 채점지침과 채점등급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현대 미디어 환경과 인간 행동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 채점지침 】

[문제 1]은 현대 미디어 환경과 인간 행동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파악하여,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서술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핵심은 단순히 제시문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제시문이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으며 그 해결 가능성을 무엇에서 찾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개인 책임론 대 사회 책임론'의 단순한 구도를 넘어, 각 입장 내에서도 인간의 자유와 욕망, 통제 가능성, 사회 구조와 기술 환경 등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우수한 답안은 제시문들을 '개인의 자기통제와 자율적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과 '사회 구조와 미디어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정확히 분류한 뒤, 같은 입장 안에서도 제시문별 강조점의 차이까지 고려하여 논지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문해력과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의 인간 행동을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문제로 조망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을 견지한다. 특히 오늘날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몰입과 중독적 사용 현상을 인간의 욕망 관리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이해한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개인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미디어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두 제시문은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 환경이 인간의 행동과 욕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며, 개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는 순간조차 사회적·기술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 해당 주제는 디지털 매체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방안, 개인의 자율성, 사회적 강제력, 사회 규범 등 고등학교 교과에서 익숙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분

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이 문제적 미디어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같은 입장 안에서도 각 제시문이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의 측면에서 강조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모두 인간이 유혹과 충동에 흔들리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관리와 실천을 통해 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의존이나 중독적 사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두 제시문은 논의의 중심이 다소 다르다.

<제시문 1>은 미디어 과의존이나 중독적 사용과 같은 문제적 미디어 사용의 원인으로 인간의 유한한 의지력과 욕망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이 제시문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다양한 욕망에 노출되며, 특히 소셜미디어 환경은 뇌의 보상 체계를 즉각적으로 자극하여 사람들을 유혹에 취약하게 만든다. 또한 인간의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욕망 억제 과정에서 쉽게 소진된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과의존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유한한 의지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1>은 인간의 한계와 욕망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자기절제와 의지력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현실주의적 자기통제론의 입장을 보여준다.

반면 <제시문 4>는 문제적 미디어 사용의 해결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를 바탕으로, 인간은 외부 환경이나 통제되지 않은 충동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주체라고 본다. 특히 절제와 같은 덕은 반복적인 실천과 습관 형성을 통해 만들어지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기술을 자기 성장을 위한 도구로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를 기업이나 알고리즘의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를 비판하고, 인간을 단순히 환경의 피해자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제시문은 동일한 미디어 환경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시간 관리 습관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삶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반복적 실천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두 제시문은 미디어 과의존이나 중독적 사용의 문제를 개인의 자기통제와 자율적 실천의 문제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른 한 편으로, 두 제시문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제시문 1>은 인간의 제한된 의지력과 디지털 미디어의 유혹에 대한 취약성을 중심으로 문제적 미디어 사용을 유발하는 개인 내부의 원인을 강조하는 반면, <제시문 4>는 인간의 자율성과 반복적 실천을 통한 성품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형성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강조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가 인간의 한계를 전제로 자기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인간의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문제적 미디어 사용 현상을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며,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사회 구조와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을 취한다. 즉, 두 제시문 모두 소셜미디어 환경이 인간의 욕망과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와 기술 환경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두 제시문 역시 논의의 중심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제시문 2>는 미디어 사용 문제의 해결 방향으로 공공의 책임을 통한 미디어 환경의 설계와 관리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제시문에 따르면, 사회는 법과 관습, 규범 등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조정하며, 인간의 욕망 또한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된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삶과 소비를 끊임없이 노출함으로써 이러한 모방적 욕망을 더욱 강화한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 역시 사회 관계와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미디어 환경을 단순한 사적 선택의 영역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제시문은 왜곡된 사회적 압력이 개인의 욕망과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공공의 책임 아래 미디어 환경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3>은 문제적 미디어 사용의 원인을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설계에서 찾는다. 이 제시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선과 시간을 오래 붙잡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개인화된 미디어이다.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등은 인간의 보상 체계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며,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이미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선택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게 만든다. 또한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릴수록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용자가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구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 문제는 개인 의지의 실패라기보다 인간의 행동과 선택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문제로 설명된다.

요컨대 두 제시문은 모두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사회 구조와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각 제시문의 핵심 주장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3>은 알고리즘과 플랫폼 설계가 만들어내는 기울어진 선택 구조를 중심으로 미디어 과의존의 원인을 미디어의 구조적 환경에서 찾고 있다. 반면, <제시문 2>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강제력과 욕망의 모방적 특성을 강조하고, 공공의 책임 아래 미디어 환경을 관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이처럼 각 제시문의 입장 및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하여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 채점등급 】

A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하는 제시문들 간의 차이점까지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B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간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하지 못한 답안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종합한 두 입장의 논지가 충실히 기술되지 않은 답안

D :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논지 서술도 충실하지 않은 답안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문제 2] A국 소셜미디어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집단별 심리·사회 관계적 특성을 제시한 <자료 1>과,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 전·후의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를 보여주는 <자료 2>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자료에 제시된 정보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40점)

【 채점지침 】

[문제 2]에서는 A국 소셜미디어 이용자 집단별 심리·사회적 특성과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 전후의 이용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1>, <자료 2>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즉 문제적 미디어 사용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개인의 자기통제와 자율적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과 사회 구조 및 미디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각각 옹호해야 한다.

문제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자료가 보여주는 이용자 집단별 심리·사회 관계적 특성과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 전후의 집단별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를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 좋은 답안 작성의 핵심은 자료의 수치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조절 역량,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 사회적 고립감이 소셜미디어 과의존 및 알고리즘 의존도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이라는 플랫폼 구조의 변화가 이용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각 자료의 내용이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 및 각 제시문의 주요 논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추론해야 한다.

<자료 1>은 A국 소셜미디어 이용자 1,000명을 자기 인식 및 사회적 관계 특성에 따라 A~D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조절 역량,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 사회적 고립감을 비교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먼저 각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추론하고,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포착해야 한다. 자료에서, A 집단과 D 집단의 차이를 통해 개인의 자기 인식(자기개념 명확성 및 자기조절 역량),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 사회적 고립감이 소셜미디어 이용 양상과 관련됨을 추론할 수 있다. A 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42점으로 낮고, 사회적 고립감은 78점으로 높으며, 자기조절 역량 지수와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도 각각 31점과 26점으로 가장 낮다. 반면 D 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86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 고립감은 28점으로 가장 낮으며, 자기조절 역량 지수와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도 각각 79점과 68점으로 가장 높다. 이를 통해 자기개념이 명확하고 자기조절 역량과 디지털 미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디어 영향 이해도가 높은 소셜미디어 이용자 집단은 사회적 고립감이 낮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자기조절 역량과 디지털 미디어 이해도가 낮은 소셜미디어 이용자 집단은 사회적 고립감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도 추론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차이를 <자료 2>에 제시된 미디어 환경 변화(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 전후의 집단별 소셜미디어 이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다른 한 편으로, <자료 1>은 개인의 내적 특성만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도 보여준다. B 집단의 경우,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조절 역량,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가 A 집단처럼 매우 낮은 수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감은 82점으로 네 집단 중 가장 높다. 이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고립감 문제를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이나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기 어려운 현상임을 파악해야 한다.

<자료 2>는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 전후, 즉 미디어 환경 변화 전후의 집단별 소셜미디어 이용 특성 및 관련 지표를 보여준다. 이 자료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 이전인 T시점에서 네 집단의 소셜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T시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A 집단 21%, B 집단 20%, C 집단 19%, D 집단 18%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 1년 후에는 집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즉, A 집단은 60%, B 집단은 67%로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C 집단은 29%, D 집단은 18%에 머물고 있다. 이는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 이후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가 집단별로 다르게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자료 1>과 <자료 2>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 전후 각 집단의 반응 양상이 서로 다름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A 집단은 복합적으로 문제적 미디어 이용에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자료 1>에서 A 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 42점, 자기조절 역량 31점,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 26점으로 모든 지표가 낮고, 사회적 고립감은 78점으로 높다. <자료 2>에서도 A 집단은 T+12 시점의 알고리즘 의존도 79점, 사용시간 증가율 142%, 과의존 위험군 비율 60%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A 집단이 자기조절 역량과 디지털 미디어 이해도가 낮아서 소셜미디어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감 또한 높아서, 플랫폼 구조의 변화에 따른 알고리즘의 영향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B 집단은 미디어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감과 알고리즘 환경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B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집단은 <자료 1>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62점, 자기조절 역량 52점,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 49점으로, A 집단처럼 가장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자료 2>에서 B 집단은 알고리즘 의존도 82점,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증가율 151%, 과의존 위험군 비율 6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소셜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낮은 미디어 이해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회적 관계와 플랫폼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C 집단은 알고리즘 개인화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미디어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이 환경의 영향을 일정 정도 완충시킨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1>에서 C 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 74점, 자기조절 역량 67점,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 51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자료 2>에서 C 집단은 알고리즘 의존도 61점,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증가율 58%, 과의존 위험군 비율 29%를 보인다. 이는 C 집단 역시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이라는 미디어 환경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개인의 역량이 작동하여 그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D 집단은 자율성과 자기통제가 가장 잘 작동한 이상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자료 1>에서 D 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 86점, 자기조절 역량 79점,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 68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 고립감은 28점으로 가장 낮다. <자료 2>에서도 D 집단은 T+12 시점의 알고리즘 의존도 38점, 사용 시간 증가율 17%, 과의존 위험군 비율 1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D 집단은 T 시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18%였고 T+12 시점에도 18%로 유지되었다. 이는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이라는 환경 변화를 동일하게 경험하더라도, 자기개념이 명확하고 자기조절 역량과 디지털 미디어 이해도가 높으며 사회적 고립감이 낮은 집단은 소셜미디어 이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문제 1]의 두 입장과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 1]의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적 이용 행태를 개인의 자기통제와 자율적 실천의 문제로 조망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시문 1>은 인간의 의지력이 유한하며 디지털 환경의 즉각적 보상에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기절제와 의지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시문 4>는 인간은 외부 환경이나 충동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주체로 보며, 반복적 실천과 습관 형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과몰입 문제를 스스로 다스리고 자기통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이러한 <제시문 1>과 <제시문 4>의 공통된 입장은 C 집단과 D 집단의 사례를 통해 옹호될 수 있다. C 집단은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 이후 알고리즘 의존도 61점, 사용 시간 증가율 58%, 과의존 위험군 비율 29%를 보여 플랫폼 환경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A, B 집단보다 그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C 집단의 비교적 높은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조절 역량,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가 알고리즘 개인화의 영향을 일정 부분 완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D 집단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D 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조절 역량,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가 가장 높고 사회적 고립감은 가장 낮으며,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 1년 후에도 알고리즘 의존도, 사용 시간 증가율, 과의존 위험군 비율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T와 T+12 시점 간에 과의존 위험군 비율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은, 동일한 플랫폼 환경 속에서도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과 미디어 이해도가 높고 사회적 고립감이 낮은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 사용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C, D 집단은 인간이 의지력 관리, 자기절제, 반복적 실천을 통해 건전한 미디어 사용 행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반면, [문제 1]의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개인의 욕망과 선택이 온전히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미디어 환경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제시문 2>는 개인이 사회 규범과 다수의 압력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과 행동을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그 욕망이 타인과의 관계, 비교, 모방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제시문 3>은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과 같은 플랫폼 설계가 이용자의 보상 체계를 자극하여 특정 방향으로 행위를 유도한다고 본다. 따라서 두 제시문은 모두 미디어 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적 행태를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볼 수는 없으며, 사회적 영향과 플랫폼 구조가 개인의 행동을 조형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공통된 입장은 A 집단과 B 집단의 사례를 통해 옹호될 수 있다. A 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조절 역량,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가 모두 낮고 사회적 고립감은 높게 나타난다. <자료 2>에서도 알고리즘 의존도 79점, 사용 시간 증가율 142%, 과의존 위험군 비율 60%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A 집단이 개인적 차원의 자기조절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과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의 영향에 취약한 복합 취약 집단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A 집단은 <제시문 1>과 <제시문 4>가 강조하는 개인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시문 2>와 <제시문 3>이 강조하는 사회적 관계와 플랫폼 구조의 영향이 소셜미디어 과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B 집단은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입장을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즉, B 집단은 개인의 의지나 미디어 영향에 대한 이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 환경과 플랫폼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입장을 옹호하는 핵심 사례이다.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문제 2]의 <자료 1>과 <자료 2>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적 이용 행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의 측면에서 개인의 자기통제와 자율적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과 사회 구조 및 미디어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을 모두 옹호할 수 있는 양면적 근거를 제공한다. [문제 2]에서는 [문제 1]의 제시문 문구를 단순 반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제 2]의 자료를 [문제 1]의 두 입장 및 각 제시문의 주요 논점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D 집단의 낮은 과의존 위험군 비율만을 근거로 개인의 자기통제만 강조하거나, 알고리즘 환경 변화 후 과의존 위험군 비율 증가에 고착되어 플랫폼 구조의 영향만 강조하는 답안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우수한 답안은 <제시문 1>이 강조한 유한한 의지력 관리와 자기절제, <제시문 4>가 강조한 자율성과 반복적 실천, <제시문 3>이 강조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설계의 구조적 유도성, <제시문 2>가 강조한 사회적 관계와 공적 측면에서의 관리의 필요성을 각각 자료의 구체적 지표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한다. 특히 A 집단과 D 집단의 차이,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 후 A·B 집단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과 사용 시간 증가율의 급격한 증가, C 집단에서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의 영향이 나타났지만 개인적 역량에 의해 제한적으로 작용한 양상과 D 집단의 안정적 유지, B 집단의 높은 사회적 고립감과 알고리즘 의존도를 사회구조적 영향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답안이라 할 수 있다.

【 채점등급 】

A :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히 이해하고 두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했으며,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되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의 강조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 답안

B :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두 입장과 연결하여 서술하였으나, 두 자료의 유기적 연결이나 각 제시문 간의 강조점 차이를 충분히 부각하지 못한 답안

C : 자료의 주요 수치는 정확하게 해석했으나, <자료 1>과 <자료 2>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보다는 각각의 내용을 단순 나열하거나 [문제 1]의 제시문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 자료의 일부만 정확하게 해석했거나,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만 옹호한 답안

E : 자료의 핵심 내용을 부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잘못 연결한 답안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료 해석이 거의 없고 [문제 1]의 두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답안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문제 3] K국 정부는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 개선 특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생은 이 방안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오직 하나의 입장을 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유관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 채점지침 】

[문제 3]은 가상의 국가인 K국의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환경 개선 특별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오직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유관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 1]의 제시문들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적 이용 행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의 측면에서 '개인의 자기통제와 자율적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제시문 1, 4)과 '사회 구조와 미디어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제시문 2,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 2]의 <자료 1>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조절 역량, 디지털 미디어 영향 이해도와 같은 개인 내적 특성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가 한 방향으로 단순하게 관련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즉,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이나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 미디어 영향 이해도 등과 일정 수준 관련은 있지만 전적으로 이용자 개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현상임을 보여준다. <자료 2>는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가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어느 한 방향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즉,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 도입이라는 플랫폼 구조 변화 이후 일부 집단에서 소셜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고 일일 평균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도 증가하는 문제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자기개념이 명확하고 높은 수준의 자기조절 역량을 보유한 집단의 경우 플랫폼 구조 변화의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이는 건전한 미디어 활용에 필요한 심리적 자원을 갖추지 못한 집단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문제 1]의 제시문들과 [문제 2]의 유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에 제시된 특별세 신설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3]의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학생들은 먼저 현대 미디어 환경과 인간 행동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해당 세금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음을 추론하고, [문제 1]에 등장한 '개인의 자기통제와 자율적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 또는 '사회 구조와 미디어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리를 효과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특별세 신설에 찬성하는 경우, 학생들은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있어 사회 구조와 미디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제 1]의 <제시문 2>, <제시문 3>, 그리고 [문제 2]의 유관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답할 수 있다. 즉 한 사회의 디지털 중독 문제는 구성원 개인의 역량 부족이나 책임 있는 실천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피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 공공 재원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과제를 정부가 주도하여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제시문을 토대로 플랫폼 기업들은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피력할 수 있다.

반면에, 특별세 신설에 반대하는 경우 학생들은 [문제 1]의 <제시문 1>, <제시문 4>, [문제 2]의 유관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용자 개인의 자기 조절력 함양과 자율적 실천, 그리고 지속적 노력 없이는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을 피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건강한 심리적 자원을 갖추지 못한 일부 취약한 개인들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중독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람들은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스스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시사하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설령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독에 취약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한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이므로, 공공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문제 3]의 핵심은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유관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의 논지를 [문제 1]의 제시문으로부터 정확하게 도출하고, 이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복합적으로 제시된 [문제 2]의 자료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상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 구성을 토대로 자신의 입장과 판단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의 포인트이다.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문제 3]은 학생들이 특정 현상과 관련된 상반된 주장의 핵심 논리와 관련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일치하는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친 답안은 좋은 답안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자료의 핵심을 포착하여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논술한다면 문제의 조건에도 부합하고 풍부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채점등급 】

A :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다소 미흡한 답안

C :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제시문과 자료를 잘 못 연결하여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1398
성균관대학교
SUNG KYUN KWAN UNIVERSITY